

# 대체 외국인 타자 아데를린, 데뷔 타석서 스리런



KIA 타이거즈 새 외국인 타자 아데를린이 5일 열린 한화와의 홈경기에서 5번 타자 1루수로 출전해 1회말 데뷔 타석에서 3점포를 터뜨린 후 타구를 바라보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화력 폭발’ KIA, 어린이날 한화戰 12대7 승리

### 김도영 ‘12호포’...박재현 홈런 포함 4안타 4타점 ‘일당백’ 선발 이의리 난조 불구 불펜의 힘으로 버텨, 5할 승률 ‘눈앞’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어린이날 승리를 선물했다. KIA는 5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 이글스와의 홈 경기에서 12-7로 이겼다. 15승 16패 1무로 단독 5위 자리를 지켰고, 올 시즌 한화전 4전 전승으로 무패 행진을 이어갔다. 마운드가 불넷 11개를 내줬지만, 타선이 답을 냈다. 장단 14안타가 터진 가운데 리드오프 박재현이 중심에 섰다. 5타수 4안타 4타점 (1홈런). 개인 한 경기 최다 안타 타이이자 최다 타점 신기록이다. 지난 2일 KT전 (4안타 2타점)을 넘어섰다. 김도영도 터졌다. 시즌 12호 홈런을 포함해 4타수 3안타 1타점. 홈런 부문 선두를 질주했다. 대체 외국인 타자 아데를린은 데뷔 첫 타석에서 홈런을 쏘아 올렸다. KBO 외국인 선수 역대 6번째, 구단 두 번째 기록이다. 김선빈은 멀티안

타, 정현창은 2타점. 타선 곳곳에서 힘이 붙었다. 선발 이의리는 1.2이닝 2피안타 6사사구 1피홈런 3탈삼진 5실점으로 부진했다. 대신 불펜이 승리를 지켜냈다. 김태형-한재승-조상우-김범수-최지민-장재혁으로 이어진 계투진이 무실점으로 버텼다. 5회 등판한 한재승이 시즌 첫 홈런투수가 됐다. 9회 등판한 김건국은 2실점을 기록했다. 출발은 좋았다. 1회말 2사 1.3루에서 아데를린의 중앙 담장을 넘기는 스리런 홈런으로 앞서나갔다. 그러나 곧바로 흔들렸다. 선두타자에게 솔로 홈런을 맞았다. 이어 안타와 볼넷, 사구로 무사 만루. 연속 삼진으로 숨을 골랐다. 밀어내기 볼넷 2개로 동점을 허용했고, 2타점 적시타까지 맞으며 역전을 내줬다. KIA도 반격에 나섰다. 2회말 무사 만루에서 박재현의 적시타와 김호령의 희생플라이로 균형을 맞췄다.

5회 다시 앞서나갔다. 박재현의 솔로포와 김도영의 중견수 뒤 홈런으로 리드를 잡았다. 6회에도 박재현의 적시타로 점수 차를 벌였다. 7회 정현창의 2타점 안타와 한준수, 박재현의 적시타로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KIA는 9회 등판한 김건국이 아웃카운트 3개를 채우며 경기를 마무리했다. 이범호 감독은 “타선이 집중력을 보여준 경기였다”고 짚은 뒤 “6회 만루 위기에서 김범수가 흐름을 끊어준 점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날 팬들에게 승리를 선물할 수 있어 의미 있다”고 덧붙였다. 아데를린은 “첫 경기에서 승리해 기쁘고, 첫 타석 홈런으로 팀에 선취점을 보낼 수 있어 더 의미 있었다”며 “한국 투수들과 새로운 환경에 계속 적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날 응원 열기도 뜨거웠다. 광주 홈 구장은 2만500명으로 매진됐다. 시즌 10번째, 7경기 연속 매진이다. 전 구장이 모두 찼다. 잠실 2만3천700명, 문학 2만3천명, 대구 2만4천명, 수원 1만8천700명, 광주 2만500명이다. 총 관중 10만9천900명. 어린이날 기준 역대 두 번째 기록이다. KBO 리그 어린이날 전 구장 매진은 역대 6번째, 10구단 체제에서는 두 번째다. 최다 기록은 2016년 11만4천85명이다. /주홍철 기자

## “매 경기, 팀 승리에 집중”

### KIA 새 외국인 타자 아데를린 “카스트로 공백은 없다”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새 외국인 타자 아데를린 로드리게스가 담담하게 첫 인사를 건넸다. 짧지만 메시지는 뚜렷했다. 아데를린은 5일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기자단 인터뷰에서 “팀을 위해 매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IA는 부상으로 이탈한 카스트로의 대체 선수로 아데를린과 계약기간 6주, 연봉 5만 달러에 계약했다. 단기 계약이지만, 팀 입장에서는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서 빠른 적응이 요구된다. 도미니카공화국 출신인 그는 신장 190cm, 체중 95kg의 체격을 갖춘 우투우타 내야수다. 미국프로야구 마이너리그와 일본프로야구, 멕시코 리그를 거치며 다양한 리그를 경험했다. 첫 인상은 단순했다. “항상 준비돼 있다.” 타선에 대해서도 간단히 덧붙였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팀과 함께 이기는 야구를 하는 선수다.” 타격 스타일은 명확했다. 홈런보다는 과정이다. “투수에게 어려움을 주는 타자가 되고 싶다. 강한 타구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훈련에서도 방향은 같았다. 가볍게 맞힌 타구가 넘어가기도 했지만, 의도적으로 힘을 신진 않았다. “경기에 맞춘 스윙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적응에 대한 부담도 크지 않다. 일본과 미국, 도미니카, 멕시코를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서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행은 타이밍이었다. “이전에도 기회는 있었지만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6주 계약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감사하다.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역할보다 팀에 녹아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팀의 일원이 돼 승리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ABS와 피처클락 등 새로운 제도에도 “경험이 있어 문제없다”고 했다. 이범호 감독은 “아직 국내 리그에 적응 과정이 필요하다”며 “경험이 풍부한 선수다. 수비에서도 큰 문제가 없다. 타격에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홍철 기자

## 광주FC U18 금호고 ‘왕중왕戰’ 직행

### 2년 연속 K리그 주니어 전반기 리그 우승...공격수 박건후 8경기 11골 맹활약

프로축구 광주FC U18 금호고(이하 광주 U18)가 2026 K리그 주니어 고등 축구리그 B권역 전반기 우승을 차지하며 왕중왕전 진출에 성공했다. 광주 U18은 지난 2일 금호고에서 열린 용인FC U18과의 경기에서 5-2로 승리하며 전반기 리그 우승을 확정했다. 홈에서 열린 경기에서 다득점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자력으로 결정지었다. 광주 U18은 이번 리그에서 5승 2무 1패를 기록, 울산 HD FC U18 현대고와 승점 동률을 이뤘지만 다득점에서 앞서며 최종 1위를 차지했다. 광주 U18은 시즌 내내 안정적인 경기력과 공격력을 바탕으로 치열한 순위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 특히 공격수 박건후는 8경기 11득점을 기록하며 경기당 한 골 이상을 득점하는 등 팀 공격을 이끄는 핵심 자원으로 활약했다. 이번 우승은 지난해 전반기 리그 우승에 이은 2년 연속 정상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광주 U18은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과를 이어가며 K리그 유소년 강호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광주FC 구단 관계자는 “2년 연속 전기 리그



2026 K리그 주니어 고등 축구리그 B권역 전반기 리그 우승 주역인 박건후가 우승컵을 들고 팀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광주FC 제공>

우승은 선수단의 노력과 구단 유소년 시스템의 경쟁력이 결합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각종 전국대회에서 선수들의 성장과 좋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감독으로 데뷔한 첫 해부터 바로 우승을 거머쥔 박요한 광주 U18 감독은 “몇 개월간의 장

기 레이스에서 선수들의 꾸준한 경기력을 보며 작년보다 더 큰 성장을 이뤘다고 느꼈고, 이게 곧 좋은 성과로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 첫 발걸음을 뒀을 뿐이다. 좋은 대회 성적은 물론 프로에 올라가서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선수를 육성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빛고을서 전국 야구 꿈나무 열전

### 제3회 대통령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시구

전국 유소년 야구선수들이 빛고을에서 갖고 닦은 실력을 겨룬다. 제3회 대통령배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가 5일 무등야구장에서 대성초와 울산 대현초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10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지난해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4강 1회 이상, 8강 2회 이상 진출한 32개 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가리는 이번 대회에 광주에서는 대성초, 수창초, 송정동초 등 3개 팀이 참가한다. 특히 수창초(제5회 소년체전 광주대표)는 ‘제22회 흥타령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팀으로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이날 오전 경기장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대회 관계자들과 선수단을 격려한 후 시구를 했다. 전갑수 회장은 “야구의 도시 광주에서 전국 유소년들의 수준 높은 대회가 열리게 돼 뜻깊



왼쪽부터 김성환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장, 전갑수 회장, 강혜정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이사. <광주시체육회 제공>

게 생각하고 선수단 모두를 환영한다”며 “전국의 야구 꿈나무들이 안전하게 최고의 경기를 펼치고, 맛과 멋의 고장 광주의 매력을 느끼며 소중한 추억을 쌓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 기자

## 광주시청 김태효·이재성, 종별육상 ‘금빛 질주’

### 정안성, 400m 허들 ‘銀’

광주시청 육상팀 김태효와 이재성이 제5회 전국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남자 100m와 200m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김태효는 지난달 30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남자일반부 100m 결승에서 10초45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서민중(서천군청)과 기록이 같아 공동 1위가 됐다. 지난해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와 라인-루르하게유니버시아드 남자 400m 계주 금메달리스트 이재성은 2일 열린 남자 200m 결승에서 20초87로 1위에 올랐다. 예선을 20초97로 통과한 이재성은 결승에서 2위 김동진(구미시청·21초10)과 3위 허정현(목포시청·21초17)을 제치고 가장 먼저 피니시 라인을 통과했다. 남자일반부 400m허들을 출전한 정안성은 51

초11을 기록, 조상현(목포시청·50초67)에 이어 두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200m 간판인 고승환은 예선을 20.79로 통과했으나 굵은 날씨로 인한 부상 위험으로 결승은 출전하지 않았다. 지난 겨울 제주와 목포에서의 전지훈련으로 2026시즌을 준비해온 광주시청 육상팀은 지난 3월 2026 KTFPL 김해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로 시동을 건 뒤 이번 대회에서 금빛 질주를 펼쳤다. 다음 대회는 오는 11-15일 강원도 정선에서 열리는 제80회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다. 전국육상경기선수권대회는 오는 9월 열리는 2026 아이치-니고야 아시아게임 대표선발전을 겸해 이번 대회에 나서지 않았던 김은빈과 모일환 등도 출전한다.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은 “선수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우승 소식을 안겼다. 다음 주에 야



김태효 이재성

시안게임 대표선발전을 앞두고 있어 부상 위험이 있거나 몸 상태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경우 뛰지 않았다”면서 “이번 대회 끝나고 곧바로 정선으로 간다.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차분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 기자